2015. 10. 8.(목)

방송통신위원회

해 명 자 료

2015년 10월 8일(목) 배포 시점부터
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경제 혁신 3개년 계획 — 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

문의 :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신종철 담당관(☎2110-1550)
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백설영 사무관(☎2110-1509)

「 '판 키우자'는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단통법에 묶인 휴대전화는 '남의 일' 」 제하의 보도기사에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□ **언론사명** : 한겨레

□ **보도일** : 2015. 10. 8.(목)

□ **제 목** : '판 키우자'는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, 단통법에 묶인 휴대전화는 '남의 일'

□ **보도요지**

○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중에도 휴대전화는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, 단말기유통법 적용대상이 아닌 백화점에서 직접 지급하는 상품권이나 신용카드 할인도 금지하는 등 법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

□ 해명내용

○ 이동통신사나 제조사가 단말기 지원금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이외에 카드사의 청구할인이나 순수하게 백화점이 제공하는 상품권·사은품 또는 제조사가 20% 요금할인이 가능하도록 직접 판매하는 자급제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유통법의 적용대상이 아님

○ 다만, 이러한 청구할인, 상품권 등이 시장 마케팅의 자율성을 확대하되, 단말기유통법을 우회하여 위반하는 등 영세 유통점들의 애로를 가중시키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시장모니터링 등 정책적 노력을 할 계획임. 끝.